



출품준비 요령



본 자료는 지난 9월 7일부터 12일까지 한국낙농경영인회와 (주)중앙진테크가 공동으로 주관한 출품우 관리 및 품평회 준비에 관한 지역세미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.

털깎기

▶ 출품우 외형을 잘 만들어 장점을 강조하고 단점을 보완하자



그림 1. 이발기 날은 가능한 평편하게 어깨 쪽을 향하여 털 방향과 반대로 깎으며, 몸체는 초보자라면 보이지 않는 방향부터 하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다. 또한 발굽관절은 위로 향하게 하여 깎는다.



그림 2. 척추 부분은 등선으로부터 약 5cm 정도 털을 남기고 깎는다.



그림 3. 꼬리 끝은 두 움큼 정도 남겨 놓고 깎은 후 꼬리를 묶어 놓는다.



그림 4. 나머지 다리부문을 깎고 앞다리로 이동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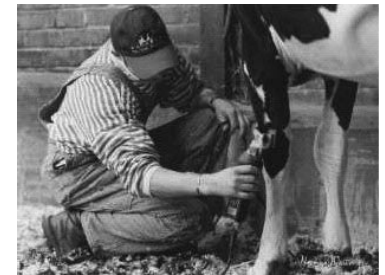


그림 5. 마지막으로 무릎은 한 번 더 정리해 준다.

털깎기 시 주의사항

- ▶ 다리를 깎을 때 다른 한손은 지속적으로 출품우를 잡아준다(놀람방지),
- ▶ 머리깎기 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한다.(굽레를 벗길 경우)



그림 6. 머리털은 반대방향으로, 눈 위
부터 위쪽으로 이후 턱 코 순으로 깎
는다.



그림 7. 귀는 소음 때문에 세심한 주의
를 기울여야하며, 귀 이표 부분은 더욱
주의한다.



그림 8. 꼬리부분부터 털 세우기를 하
며, 드라이기는 좁은 입구를 가진것을
사용한다.



그림 9. 등선 세우기는 어깨부분에서
방향을 바꾼다.(머리에서 어깨까지)



그림 10. 마무리는 작은 이발기로(등
선) 정리한다.(등선라인을 확인한 후
천천히 작업한다.)



그림 11. 가위를 이용하여 마무리 후
스프레이로 고정한다.



그림 12. 길고 부드러운 부러쉬를 이용
하여 털을 제거한다.



그림 13. 마지막으로 작은 브러쉬로 꼬
리털을 정리한다.



그림 14. 손질을 끝낸 모습.
털깎기는 우리 일상생활과 같다. 더 많
은 연습만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.



굴레(홀터) 잡기

- ▶ 굴레는 왼손으로 말아 올려 잡고 있어야 하며, 출품우와 출품자는 약 50cm 정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.
- ▶ 손의 위치는 출품우의 얼굴을 거슬리지 않게 잡아야 하며, 뒷 걸음질 하지 않도록 충분히 타이트하게 잡는다.
- ▶ 손의 위치는 출품우의 머리와 비슷하게 위치하게 하며 팔꿈치를 약간 굽힌다.(너무 높거나 팔꿈치를 펴지 않음)



그림 15. 굴레를 잘 잡은 모습



그림 16. 굴레를 잘못 잡은 모습



그림 17. 정확한 손 위치



그림 18. 편 팔꿈치



그림 19. 너무높음

출품자의 자세

쇼장에 들어가기

- ▶ 순서에 맞춰 시계 방향으로 입장 후 심사시작 되기 전까지 앞을 향하여 계속 걸어간다.
- ▶ 쇼장에 입장 후엔 왼손에 굴레를 잡고, 몸을 구부리거나 하지 말며 출품우가 움직이는 대로 같이 움직인다.
- ▶ 주위 관객들과 이야기 하지 말며, 충고사항도 듣지 않는다.(심사자는 뒤에도 눈이 달렸다.)

시선 처리와 위치

- ▶ 한눈은 출품우를 다른 눈은 심사자를 주시 하며, 항상 전체와 자기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시한다.



그림 20. 높이 머리 들기



그림 21. 낮게 머리 들기

- ▶ 앞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며, 거리가 좁을 경우 다른 팀에 방해 되지 않게 한다. 특히 앞으로 나가 다른 팀이 안보이도록 하는 것도 감점 요인이 되므로 주의한다.

심사자의 관찰 및 심사

- ▶ 1차 심사 후 자세한 관찰 시작 → 심사자와 첫인상이 중요
- ▶ 다른 출품우를 심사한다고 해서 자세를 느슨하게 하면 안된다.
- ▶ 심사자의 신호를 주시하며, 지시에 재빨리 행동해야 한다,
- ▶ 출품우 자세가 만족스럽다면 심사자를 주시한다. 만약 출품우가 불편해 하면 따라주는 것이 좋다.
 - 완벽하진 않아도 90%는 좋은 자세로 이끌 수 있다.
- ▶ 심사자의 피모 관찰
- ▶ 이후 후구 관찰 → 이때 등선은 곧게, 머리는 앞을 향하도록
- ▶ 심사자가 다른 방향을 심사 시 → 자신감 있는 자세 유지
- ▶ 다시 앞 검사 시 → 시선을 심사자에 다시 고정한다.
- ▶ 다시 걷기
 - 심사 후 다시 걸을때 심사자가 지명하면 신속히 지정된 위치로 나간다.
 - 서있는 뒷 다리 자세는 심사자 반대편 다리가 앞으로 오도록 한다.
 - 출품우가 위치 이탈시 어깨를 눌러 위치를 정정해 준다.
 - 움직임이 필요시 제자리에서 회전한다.
 - 호출이 안되더라도 자세를 유지 → 심사자를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.



그림 22. 정확한 자세 - 심사자가 뒤에 있을 때



그림 23. 심사자의 피모 심사시



그림 25. 바르게 미근을 내린 모습



그림 26. 등선을 고정하는 모습

- ▶ 심사자의 질문에 대답을 준비한다.
- ▶ 꼬리 모양 변경 방법 - 굴레는 왼손에 잡고, 오른손으로 모양 정정 등을 한다.(등선 고정시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.)
- ▶ 라인에서 자세 및 위치 교정
 - 심사자의 자리 이동에 신속히 따른다.
 - 순위 변동 시 앞으로 걸어 시계 방향으로 이동한다.
 -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뒤야 한다.
 - 출품우가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회전해야 한다.
 - 단, 순위 하향 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여 재 위치에 선다
 - 다른 축 이동시 자리 양보한다.

출품자의 10가지 숙지사항

1. 40%는 준비에서 40%는 외모에서 20%는 대상축과 출품자 자세에 의해 결정된다.
2. 출품자는 적절한 품평회 복장을 착용해야하며 소에 나가기 전에 깨끗한 외모를 유지해야 한다.
(흰색 바지, 흰 셔츠 착용 시 긴 소매는 말아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)
3. 출품자는 항상 우리 소가 불안해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항상 주의해야 한다(본인의 출품우이 100% 컨디션이 아닐 수도 있다.)
4. 항상 심사자를 주시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해야 한다.
5. 항상 정해진 신호를 준수하여야 한다.
예) 손을 회전 시 걸으라는 신호, 손을 들면 멈추라는 신호, 다른 출품자는 항상 가까이 있으므로 자신의 신호를 잘 인지해야 한다.
6. 모두가 1등을 할 수 없으며 본인 희망대로 점수가 안나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, 마지막 심사자의 조언을 경청하여 다음 출품 시 개선의 기회로 삼는다.
7. 절대 다른 출품우에 동요되어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.
8. 항상 규정된 털깎기만을 따를 필요는 없다. 그러나 지제, 등선 등의 중요부분의 털깎이는 잊지 말아야 한다.
9. 특이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판단해야 한다.
10. 출품 자체를 즐겨라